

## 2022 편입고사 (영어)

### 문제 해설

1. ①

**[설명]** ‘harness’는 ‘(말 따위에) 견인줄을 채우다’ 혹은 ‘동력화하다, 이용하다’라는 의미이다. 따라서 보기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는 ‘~의 특색을 살리다, 이용하다’를 뜻하는 ‘exploit’가 가장 의미가 유사하다. ‘contract (계약하다, 질병에 걸리다)’, ‘restrict (제한하다)’, ‘welcome (환영하다)’ 등은 답으로 적합하지 않다.

2. ④

**[설명]** ‘apathetic’은 ‘냉담한, 무관심한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가 유사한 단어는 ‘indifferent (무관심한)’이다. ‘lame (절름발이의, 불완전한)’, ‘futile (무익한, 하찮은)’, ‘shrewd (예민한, 날카로운)’ 등은 답으로 적합하지 않다.

3. ③

**[설명]** ‘carnivore(육식동물)’들이 ‘herbivore(초식동물)’들을 따라다닌다는 의미이므로 가장 적절한 동의어는 ‘predator(포식자)’이다. ‘prey’(먹이), ‘reptile(파충류)’, ‘amphibian(양서류)’ 등은 답으로 적합하지 않다.

4. ①

**[설명]** ‘deprave’는 ‘타락시키다, 부패시키다’의 의미이다. 따라서 과거분사형의 ‘depraved’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단어는 ‘부패한, 타락한’이라는 뜻의 ‘corrupt’이다.

5. ③

**[설명]** ‘back off’는 ‘그만두다, 물러나다, 철회하다’라는 의미로, 보기의 단어들 중에 ‘abandon’이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. ‘furnish (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다)’, ‘reimburse (배상하다)’, ‘resist (저항하다)’ 등은 답으로 적합하지 않다.

6. ②

**[설명]** 각각 다른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‘염기서열’에 대한 표현으로 ‘sequence (연속, 연쇄)’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.

7. ①

**[설명]** 교수가 한 반의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이므로, 빈 칸에는 ‘cap’이 들어가야 한다. ‘인원이 ~로 제한되다’라고 할 때 ‘be capped at’라는 표현을 쓴다. ‘con’은 ‘정독하다, 배우다, 자세히 조사하다’, ‘collect’는 ‘모으다, 수집하다’, ‘confine’은 ‘어떤 공간에 가두다’라는 뜻이므로 부적합하다.

8. ③

**[설명]**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문장구조로 되어 있다. 또한 빈칸에는 앞에 오는 ‘모호한, 애매한’이란 의미의 vague와 연결될 수 있는 형용사가 필요하다. 따라

서 '파악하기 힘든, 이해하기 힘든'이라는 의미의 'intangible'이 가장 적합하다.

9. ④

**[설명]** 출장비에 관해 환급을 받으려면 '경비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'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④가 정답이다.

10. ②

**[설명]** that 절 안에서 동명사 주어를 찾는 문제이므로 'providing'이 정답이다. '학령 아동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것이 행동상의 문제들을 줄어뜨리게 했다'는 내용이다.

11. ①

**[설명]** '그러한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, 왜냐하면 우리는 노령과 그 결과의 고통 및 죽음을 불가피한 인생의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배우기 때문'이라는 내용이다. 우리가 '배운다'는 것은 'we learn' 혹은 'we are taught'로 표현해야 하고, '받아들이다'라는 부분은 'to accept' 라는 능동 표현이 되어야 하므로 답은 ①번의 'are taught to accept' 이다.

12. ②

**[설명]** but 이하의 문장('that 이하의 소식이 훨씬 더 좋다')은 도치되어 있다. the news가 주어이고 was가 동사이며 보어는 good의 비교급인 better이다. still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 비교급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. 주어가 동사 뒤에 가 있으므로 동사와 보어의 자리가 도치되어야 한다.

13. ③

**[설명]** force의 의미와 문법적인 측면(집합적으로 '성원(成員), 부원')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. sales force는 '판매부서원'을 의미하면서 집합명사로 단수로 취급되므로 ③ much만 답이 될 수 있다.

14. ①

**[설명]** 'Anyone (who is) waiting for~(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든지)'의 문법적인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. '관계대명사 주격 + be동사 (who is)'는 함께 생략될 수 있지만 ③ who waiting처럼 be동사만 생략되거나 ④ whoever(=anyone who)와 같은 표현은 문법적이지 않다.

15. ①

**[설명]** 동물들은 유전자가 전해질 수 있도록 자손을 만들기 위해 짝짓기를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①의 'that'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'so that'이 되어야 한다. 혹은 along 다음에 전치사가 와서 that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어도 가능하다. ②의 'finding'은 it seems like (that) 이후의 절 안에서 주어로 기능한다. ③의 'resort to + 명사'는 ~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자연스럽다. ④의 'others'는 앞의 전체 중의 일부를 나타내는 'some'과 짝을 지어 다른 일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므로

적절하다.

16. ③

**[설명]** 쿠바에서 있었던 세계적 집회에서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‘내가 집에 왔을 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, 내가 얻었던 정보를 이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느꼈다’는 내용이다. 내가 ‘느꼈던’ 것이 이미 과거 시제이므로, 그보다 더 이전에 얻은 쿠바에서의 정보는 과거완료 시제가 되어야 한다. 그러므로 ③번이 정답이며 ‘had gained’가 되어야 한다.

17. ③

**[설명]** ‘channel’이 명사로 ‘운하’를 뜻하지만 동사로 ‘(관심, 노력 등을) 일정 방향으로 쏠리게 하다’라는 뜻이 있다. 마케팅의 목표가 ‘구매자의 선택을 구체적인 하나의 제품으로 쏠리게 하는 것’이라는 뜻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.

18. ①

**[설명]** 빈 칸에는 뒤에 오는 countries를 수식하면서 앞에 오는 ‘peasants (농부)’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‘농업의’를 뜻하는 ‘agrarian’이 적절하다. 뒤에서 식이요법에 포함되는 음식들도 대부분 농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.

19. ①

**[설명]** 노후화되는 기간시설물(aging infrastructure)에 옥상정원을 만듦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에코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. 그것이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일지라도 ① ‘gain momentum (탄력이 생기다)’ 하게 되면 ‘tidal shift (거대한 변혁)’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.

20. ④

**[설명]** 연결어를 묻는 문제이다. (A)의 앞에는 회계 전공자가 회계에 필요한 지식이 분석적 사고(analytical reasoning)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반문한다. (A)의 뒤에는 간호학 전공자가 의학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므로 ‘유사하게’를 뜻하는 ‘Similarly’가 적절하다. (B)의 앞에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각자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, 뒤에는 어려운 문제라 할 만한 상황들이 예로 제시된다. 따라서 ‘예를 들어’라는 ‘For instance’가 적절하다.

21. ②

**[설명]** 체스 게임을 보면서 ‘(얽힌 것이) 풀리기를 기다리는’ 정교한 비밀이 있는 듯했다고 말한다. 빈 칸은 ‘비밀’을 꾸며주는 부분이므로 ‘(that were) waiting to be untangled’가 되어야 한다. 사람이 푸는 것이므로 비밀 입장에서는 ‘풀리다’라는 수동이 되어야 한다. 그러므로 정답은 ②번이다.

22. ②

**[설명]** 제약회사가 약효를 가진 식물로 실험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(variable)에 대한 내용이다. 빈칸 앞의 다양한 사례들은 변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 보기들이다.

23. ④

**[설명]** ‘루시 쿡이라는 동물학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’ 이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. 루시 쿡은 ‘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동물들도 사실은 가장 흥미롭고 또 주목과 보호를 받을 만한 동물들임’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이다.

24. ③

**[설명]** 빈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일부는 커피가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고, 또 일부는 암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‘상충하는’을 뜻하는 contradictory가 적절하다.

25. ①

**[설명]** 봉준호 감독의 초기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, 2000년도의 <플란다스의 개(*Barking Dogs Never Bite*)>이후 비평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 추론하도록 하는 문제이다. ① gain critical acclaim은 ‘비평계의 갈채를 얻다, 호평을 받다’라는 의미이다.

26. ③

**[설명]** 하이라인 위에서는 건널목이나 신호등이 없으므로 아래에서 두 블록을 걸을 시간에 열 블록을 걸을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므로, 옳은 것은 ③번이다. 마지막 열차의 운행 이후 (10년이 아니라) 20년이 지났고, 하이라인에서도 허드슨강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으며, 유명 관광지가 된 것은 2009년부터이므로 20년이 아직 안 되었다.

27. ④

**[설명]** ‘실험실의 테스트 결과들을 누군가가 보았을 즈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’는 문장이 들어갈 곳은 보기 중에 마지막인 (D)이다. 그 바로 앞 문장에서 ‘누군가가 마침내 독성 테스트를 의뢰했다’고 하기 때문이다.

28. ④

**[설명]** 대기자 명단에서 아래에 있던 웬디의 엄마가 그 앞에 있던 제인의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‘명단에서 제인을 빼 달라’고 요구하는 이메일을 학교에 보낸다. 그 결과 웬디가 올라가게 된다. 그러므로 ‘인터넷 사기’를 저지른 사람은 ④번 웬디의 엄마이다.

29. ②

**[설명]** 이 글의 내용은 1997년의 경제 위기 이전에는 한국의 정부, 금융, 기업이 서로 얽혀

있었으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혁신적이 되었다는 것이다. 이런 내용과 가장 가까운 답안은 ②이다.

30. ④

**[설명]** 귀가 잘 안 들려서 오히려 주변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(다루던 도구)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에디슨에 관한 글이다. 귀가 잘 안 들린 덕분에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믿어서, 에디슨은 청력장애인들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다. 그러므로 이 일화에 암시된 교훈은 ‘너의 결함을 이점으로 바꿔라’라는 ④번이다.

31. ④

**[설명]** 이 글은 디지털 시대에는 자아를 개발할 privacy (사적 공간, 자유)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. 따라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디지털 시대 사적 공간의 중요성이다. 천천히 진지하게 읽기의 가치를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활동으로 제시한다. 따라서 ①보다는 ④가 글의 제목으로 더 적합하다.

32. ②

**[설명]** 소금과 다른 물질들 덕분에 한겨울에도 신선한 야채를 먹는다는 입천장에 달라붙지 않는 땅콩버터, 균일하게 쌓아올려지는 감자칩 등을 먹을 수 있는데,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‘무엇에든 대가가 있는 법’이어서 야채와 과일들의 경우에는 ‘맛’을 대가로 치른다는 이야기이다. ‘무엇에든 대가가 있는 법’을 뜻하는 속담은 ‘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다’의 ②번이다.

33. ②

**[설명]** 이 글의 두 번째 문장은 과학자들이 서반구에서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광선을 베토벤의 신체 일부에 사용하여 그가 납 중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한다. 또한 다음 문장에서 이 결과가 과학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그것이 더 먼저 나온 암시나 단서들을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. 이런 내용에 비추어볼 때 과학자들이 베토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 것은 “그들이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특별한 실험들”이라고 할 수 있다.

34. ②

**[설명]** 인체에 내재된 설정 값(set point)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. 이 때문에 음식섭취를 갑자기 늘이거나 줄이더라도 인체는 체중을 10-20퍼센트 이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고 한다(①)는 내용이다. 따라서 다이어트 중에도 체중이 쉽게 줄지 않는 이유(③, ④)도 설명해준다. ② ‘이상적인 체중범위’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set point의 설명으로 나오지 않는다.

35. ③

**[설명]** 빈칸의 앞부분은 ‘신진대사(metabolism)가 음식섭취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일하는

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부분이므로 빈칸에는 ③ ‘다시 말하자면 흡입한 칼로리와 사용한 칼로리가 같다’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. ① ‘대부분의 사용한 칼로리는 ‘resting metabolism(휴지기의 신진대사)’에서 나온다’는 내용으로 답이 될 수 없다.

36. ②

**[설명]** 장수는 신체적 건강의 결과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, 일상생활을 구성하며 거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다양한 요인들 역시 중요함을 강조한 글이다. 즉,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②번의 ‘장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 심리학적 요인들의 중요성’이다.

37. ④

**[설명]** 빈 칸에 적당한 것은 ‘비키다, 회피하다’를 뜻하는 ④번 ‘staving off’이다. ‘call off (약속을 취소하다)’, ‘fall off (이탈하여 떨어지다)’, ‘put off (연기하다, 늦추다)’는 답으로 적합하지 않다.

38. ②

**[설명]** 이 글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대중이 예술을 즐기는 방법과 어린이를 위한 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mural(벽화)작업을 들고 있다. 따라서 이 글의 올바른 순서로는 (A) 감염병으로 인한 미술관 방문의 어려움—공공예술로서의 벽화제시 (C) 어린이 예술교육의 사례로서의 벽화작업 (B) 감염병 시대의 새로운 벽화작업과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으로 결론지어지는 (A) - (C) - (B)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.

39. ①

**[설명]** 본문 중 (B)에 따르면 벽화란 함께 하는 작업인데 감염병으로 인해 따로 작업한 이후 나중에 함께 붙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답은 ① ‘협력할 필요가 있다’가 된다. ② ‘항상 큰 퍼즐처럼 작용해야 한다’는 내용은 본문의 내용 (개인작업 이후 큰 퍼즐처럼 나중에 맞추는 작업)에서 지나치게 많이 비약한 선택지이다.

40. ④

**[설명]** 이 글은 코로나 19 시대 예술, 특히 벽화작업에 관해 다루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제목은 ④ ‘팬데믹 시대의 벽화작업’이 적절하다. ①, ②는 본문의 주제를 일부만 담고 있으므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.